

저 자 씨

◆제1619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6년 3월 1일(가해) 사순 제2주일



▶ 루도비코 카라치
<그리스도의 변모>
1595년경, 캔버스에 유화
볼로냐 국립 미술관, 이탈리아

입 당 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 1 독 서 창세 12,1-4ㄱ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화 답 송

주님 저 희가당 신께 바 - 라 는 그대 로자 - 애 를 배 푸 소 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 서 2티모 1,8ㄴ-1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복 음 환 호 송

길 이 요 진 리 요 생 명이 신 그리스도님 찬 - 미 받 으 소 - 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태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영 성 체 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입당송: 122 봉헌: 211 · 212 성체: 166 · 167 파견: 121

사랑의 빛



조영수 마태오 신부
주교좌 죽림동 본당 주임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2)고 하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본 일입니다. 병원 대기실이니 다들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는데, 그 한쪽에, 한 손에 짐스를 한 남자아이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가 천진난만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앞에 두고 간단한 동작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아이는 어머니를 보며 ‘까르르’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팔에 짐스를 한 채로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라면 응당 보였을 아픔이나 두려움이, 그 얼굴에서는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향한 기쁨과 사랑, 즐거움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는지 연신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던 그 어머니의 얼굴도 아들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종종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겪었던 경우들을 생각해 보니, 대개 그럴 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을 적에 그렇게 얼굴이 빛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은총이 사랑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티모테오 2서에서 밝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셨으니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티모 1,9).

사순 시기는 물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수난과 죽음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강렬한 표현이지요. 그렇기에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순 시기는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때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이기도 하지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히 드러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렇게 완성된 사랑은 언젠가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사순 시기의 은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6 가톨릭평화방송 사순 특강 방송안내

- [특강일정]- 유튜브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보시면 됩니다.
- 3월 1일 : 이 또한 지나가리라(방종우 신부)
- 3월 8일 : 하느님의 때는 다릅니다(김재덕 신부)
- 3월 15일 : 죄의 익숙함(황창연 신부)
- 3월 22일 : 과달루페의 성모(황창연 신부)

2026년 춘천교구 사순특강

주제: 예루살렘 입성과 두 개의 깃발

강사: 김영태 시몬 신부

특강 보기 춘천교구 유튜브 ▶

고정관념을 걷어내야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

예전 신학생 시절, 서울대교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성서 연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별로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신학생임을 숨기고 4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견 미사에서 신학생들은 일어서라는 지도 신부님의 말씀에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저와 같은 조에서 나눔을 한 옆자리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여기서도 장난이니?” 아마도 4일간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성사사목사제로 지내시는 원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성당 △△△신부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당 보좌 신부인가?”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신부님께서는 한참이나 어린 저를 주임 신부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게 되면, 그 한 사람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생각,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의 순간이 다르기에 생기는 차이일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겨난 어느 사람에 관한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예수님도 공생활 중 고향에 들르셨을 때, 고향 람들의 이러한 선입관 때문에 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몇몇을 치유해 주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을 베풀 수 없었다고 합니다(마르 6,1-6).

지금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생각을 잠시 접어놓고 있는 그대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거행하나요?

병자성사는 집이나 병원에서 거행되더라도 항상 전례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갖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병자를 방문하여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능하다면 교회의 미사 안에서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과 강론이 끝난 다음 사제는 병자에게 손을 얹고 주교가 축복한 기름을 발라 줍니다.(『병자성사 예식』, 82항 참조)

일반적으로 병자성사는 병이 위중한 환자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거행되므로, 병원이나 병자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베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쇠한 어르신들이나 수술을 앞둔 사람들, 또는 시한부 삶을 사는 암환자들의 경우,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미사 안에서 병자성사가 베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병자성사도 전례적 성격을 드러내며 공동체적으로 베풀어져야 하기 때문에(『가톨릭 교회 교리서』, 1517항 참조) 가족이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자성사는 고해성사나 참회 예식에 이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전례로 시작합니다. 말씀 전례가 끝나면 사제는 침묵 중에 병자에게 안수하며 성령께서 함께하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사제는 축복한 성유를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바르면서 기도를 바칩니다. 도유 기도 후 사제는 병자에게 성체를 모시게 해 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19항 참조).